

## 에든버러 점령한 한국 비보이 열풍

스코틀랜드 유력지 '비보이를 사랑한...' 등 4편 호평

한국 비보이들이 세계 최대의 공연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점령했다.

한국 비보이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면서 연일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울트라 에든버러 그린지 축제에 출품된 한국 비보이 공연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브레이크 아웃', '스핀 오디세이', '맥시멈 크루' 등 4편.

돌풍의 핵은 스카이워크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최고 인기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스코틀랜드 최고 유력지인 스코츠맨이 "현란한 비보이 춤과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평과 함께 별 다섯 개 만점을 준 이후부터 연일 매진 행렬이다.

고상한 발레를 주던 발레리나가 비보이를 사랑하게 되며 '힙합 걸'로 변신한다는 내용으로 세계 최강 비보이팀 맥스팀 크루의 현란하고 역동적인 춤과 감각적인 안무,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얻고 있다.



스티븐 시갈, 터무니없는 수사로 치명타

## “FBI, 공개 사과해!”



스티븐 시갈(56)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터무니없는 수사로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기는 5년전 2명의 언론인을 협박하려 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FBI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영화 배우로서의 경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면 공개 사과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6월 20일 당시 LA타임스와 계약중이던 프리랜서 기자 아니라 M부사가 자신의 차 앞유리가 부서진데 속은 생선과 함께 '그만 두라(Stop)'는 메모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FBI는 또 "시걸이 기자를 협박하기 위해 사립탐정 앤서니 펠리카노를 고용했지만 펠리카노가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내용의 녹취 기록을 2002년 10월 법원에 제시한데 이어 2002년 12월에는 한 잣지사 기자 역시 총을 겨누 한 남자로부터 협박받았으며 정보원은 "이 범인이 '존 로트'라는 시걸의 오랜 친구라고 제보했다"면서 법원에 펠리카노 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 ■‘광주 국제청소년음악페스티벌’ 대상 4인조 루나틱

## “관심에 목마른 사람 위한 노래 부르고 싶어”

지난 18일 2007 광주국제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열린 광주시 청암광장은 젊은 열기로 후끈거렸다.

록, 밸러드, R&B 등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는 13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친 이날 행사에서 대상(상금 500만원)은 4인조 록그룹 '루나틱'에게 돌아갔다.

스물세살 동갑내기들로 현재 대학교 유흥중인 정효진(경기도 안산시·드럼), 이제영(보컬·기타), 권영섭(기타), 김성균(베이스)씨로 구성된 '루나틱'은 자작곡 '바보'로 영예를 안았다.

"경연만 진행되는 다른 대회와 달리 2박 3일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큰 상까지 받아 더 없이 기쁘구요.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은 평크 록이예요. 저희 노래의 가사처럼 평범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싶습니다."(정효진)

중학교 동창들인 이들이 밴드를 구성한 건 4년전. 매주 성당에서 서음연습을 하며 실력을 연마한 '루나틱'은 1년 반 전부터 젊은 밴드들이 서고 싶어하는 무대인 서울 클럽에서 공연을 갖고 있다.

공연 중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이 자작곡이다. 보컬을 맡고 있는 이제영씨가 '기본적인' 구성을 해 오면 모든 멤버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작업으로 곡을 완성해 나간다.

이번 본선 참가자들은 경연 뿐 아니라 2박 3일간의 뮤직 캠프를 통해 박선주, 이한철 등이 진행하는 뮤직클래스에도 참여했으며 수상팀들에게는 오는 9월 국내 쇼케이스와 일본 아마하주

## 빛고을에서의 색다른 경험 행복

## 펑크 록 추구... 日 무대 기대돼요

최 '제1회 뮤직 레볼루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기념음반 제작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일본 무대에 서는 것에 기대가 높아요.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음악시장이 몇십배는 크니까요. 서둘러 롤클럽이 열몇개인데 반해 도쿄는 3천개가 넘어요. 밴드 수도 2만개가 넘고 무대는 무대에 서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정효진)

한편 미국, 일본 등 해외 팀을 비롯해 모두 110개 팀이 참가한



2007 광주청소년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루나틱'.

이번 경연에서는 '로빈이 토키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곡명 '벽')와 'ZOO'(곡명 '나무의 꿈')가 금상을 받는 등 모두 7개팀이 수상했다.

/김미온기자 mckim@kwangju.co.kr

## “유니폼보다 네 누이가 더 좋아”

## 마테라치, 월드컵서 지단 퇴장시킨 욕설 공개



## 고·대학생 84명에 '5·18기념재단 장학금' 지원

2006 독일 월드컵 축구 결승에서 프랑스 대표팀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의 박차기 사건을 유발했던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인터밀란)가 당시 지단에게 내뱉었던 욕설을 공개했다고 AFP통신이 19일 전했다.

AFP는 20일자로 발행된 이탈리아 TV잡지 '소리시에 칸초니'를 인용, 지난 해 월드컵 결승 당시 마테라치가 지단에게 "(유니폼 대신) 창녀인 네 누이가 더 좋아겠다"고 말해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마테라치는 이 욕설로 지단의 박차기를 유도, 그를 퇴장시켰고 프랑스는 지단의 퇴장 속에 승부차기에 들어가 3-5로 저 이탈리아에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마테라치는 그동안 구체적인 대회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었다.

앞서 마테라치는 유머집 성격의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경기 중 지단의 유니폼을 끌어당기자 지단이 '(유니폼을) 갖고 싶으면 나중에 즐겨'라고 말해 '네 누이가 더 좋겠다'라고 응수했었다"며 당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일부 털어놓은 적이 있다. 자서전은 오는 30일 출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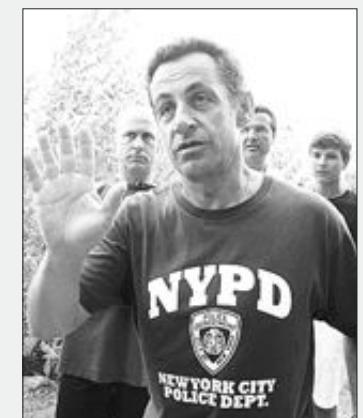
## 사르코지 휴가비는 5천700만원

## 佛 재력가 2명이 지원 논란

미국에서 바캉스를 보내고 돌아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휴가비는 얼마나 될까.

사르코지 대통령은 18일 논란이 된 휴가비용과 관련, 두 재력가가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그 이름과 신상을 공개했다.

르몽드가 보도한 이번 바캉스 후원자는 유명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프랑스'의 아녜스 크롬백 회장과 '프리다 프랑스'의 홀보답당 대표인 마틸드 애고스티넬리 등 두 사람. 이들이 사르코지 가족을 위해 지불한 2주간의 저택 임대비는 약 4만4천 유로(약 5천700만원).



신문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내가 머물렀던 빌라는 나의 친구들에 의해 임대됐으며 그 친구들은 크롬백과 애고스티넬리 일가로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을 그 곳으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 광주 북부의용소방대 자녀 5명에 장학금 전달



광주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정승용)는 지난 16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 5명을 선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 문화식 새마을운동 광주 동구지회장 취임



새마을운동 광주동구지회는 지난 16일 광주시 동구청 회의실에서 문화식 신임 지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새마을운동 광주동구지회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기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9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권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4

▲호남해비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

## 동창·동문회

▲광주 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정기모임=23일(목) 낮 12시 광주회관. 061-382-303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질체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광주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9월 1일, 8일 오후 2시~5시, 광주대서관 5층. 음·양택, 수택, 나경, 지도상명당, 장법요강 등. 문의 011-609-8117, 670-2161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이하은) 임원회=28일(화) 오후 6시30분 자연생활 채식부페. 228-0482

## 모집

▲오토증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북구 지역 결혼 이주 여성 30명. 한글·컴퓨터·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8700

▲광주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돋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 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이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광주인연맺기학교 차량지원활동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

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지원 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민요와 창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문의 011-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문의 018-610-3360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 험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 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 동구 계립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행봉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볼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음악협회 회원 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